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 미 증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연중 고점 경신

### Key Takeaways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디스인플레이션과 끈적한 서비스 물가 기조 확인
- 미 국채 30년물 입찰 견고한 수요 보이며 국채수익률 상승 제한
- 11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6개월 최저 수준인 90.6월 기록

### 변화요인

- **미 증시는 혼재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견고한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에 힘입어 상승.** 장 시작 전 발표된 11월 CPI는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속에서 경직적인 서비스 물가는 약간의 우려를 더했으나,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견고 있다는 긍정적 발언을 더한 점이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또한 오후 들어 진행된 미 국채 30년물 입찰도 견고한 수요 속에 마무리된 점도 긍정적. 이후 달러약세와 국채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상승 폭 확대. VIX 지수는 팬데믹 이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국채유가는 거의 4% 하락하며 엑스모빌이 52주 최저가를 기록. (다우 +0.5%, 나스닥 +0.7%, S&P500 +0.5%, 러셀2000 -0.1%)
-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1월 CPI는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과 동시에 지난 달 3.2%에서 둔화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 다만, 전월대비로는 0.1%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점과 가격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지난 달과 동일한 전년대비 4.0%를 기록하며 '경직적인' 흐름을 보인 점은 부담으로 작용. 항목별로는 에너지와 핵심상품 물가는 하락했지만 핵심서비스 물가 모든 품목은 상승.

### 특징종목

- 국채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1.4%) 섹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엑스모빌(XOM, -1.6%)**이 52주 신저가를 기록. **오라클(ORCL, -12.4%)**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매출 성장 둔화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하며 급락. **에어비앤비(ABNB, -1.7%)**와 **익스피디아(EXPE, -2.3%)**는 바클레이즈가 내년 수요둔화 전망에 약세. 반면, **질로우(Z, +3.8%)**, **허브스팟(HUBS, +5.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1.3%)** 등은 투자 의견 상향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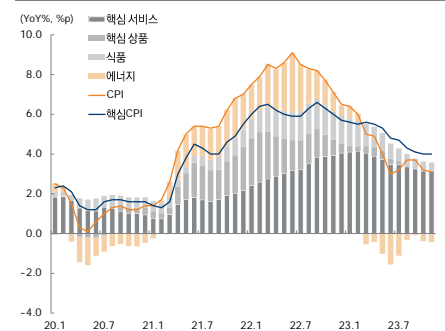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 국채유가(WTI)는 공급과잉과 수요둔화 우려로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며 **지난 6월 말 이후 최저인 배럴당 \$68.6에 마감.** OPEC+ 회의는 내년 1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 그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생산량이 지속 늘고 있기 때문.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12월 1일로 끝나는 주에 국내 휘발유 재고가 540만(예상 102만 배럴) 배럴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 또한 OPEC+ 내부의 결속력도 약화되는 모습. 이에 미 가솔린 선물 가격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달러 미만으로 하락.

### 한국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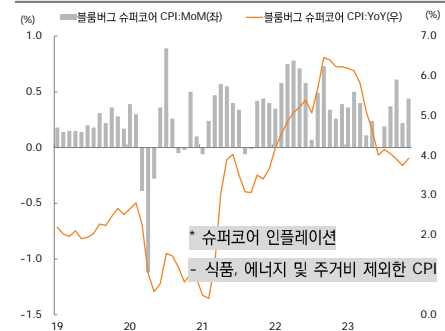
- MSCI 한국 지수 ETF는 0.5%, MSCI 신흥 지수 ETF는 0.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8.8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1% 하락. **KOSPI는 0.2%~0.4% 상승 시작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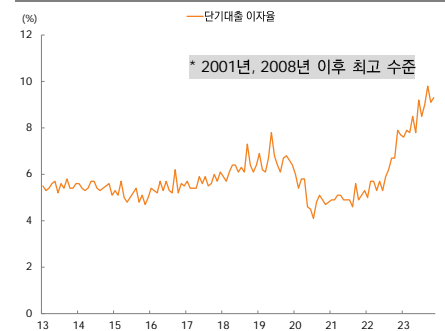
자료: BLS,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블룸버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미국 소기업 단기대출 이자율



자료: NFIB,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1	대형 가치주 ETF (IVE)	+0.4
클린테크 ETF (CTEC)	-2.3	중형 가치주 ETF (IWS)	-0.1
소매업체 ETF (XLY)	+0.3	소형 가치주 ETF (IWN)	-0.4
온라인소매 ETF (EBIZ)	-0.5	대형 성장주 ETF (VUG)	+0.7
미국 인프라 ETF (PAVE)	+0.4	중형 성장주 ETF (IWP)	+0.7
핀테크 ETF (FINX)	+0.4	소형 성장주 ETF (IWO)	+0.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1	퀄리티 배당주 ETF (ODIV)	-0.4
클라우드 ETF (CLOU)	+0.8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3
사이버보안 ETF (BUG)	+0.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	미국 국채 ETF (IEF)	+0.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4	하이일드 ETF (JNK)	+0.3
바이오섹터 ETF (IBB)	+1.1	신흥국 채권 ETF (EMBD)	+0.4
로봇&AI ETF (BOTZ)	+0.5	물가연동채 ETF (TIP)	-0.1
반도체 ETF (SMH)	+1.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OD)	+0.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3,344.07	+0.8	+2.5	+4.7
소재	520.43	+0.6	+2.1	+6.9
금융	606.15	+0.5	+1.6	+7.7
헬스케어	1,552.29	+0.5	+1.2	+5.6
산업재	931.51	+0.5	+2.2	+7.5
경기소비재	1,376.60	+0.4	+1.8	+7.5
필수소비재	747.17	+0.3	+0.7	+2.6
커뮤니케이션	235.48	+0.2	+1.7	+1.5
부동산	237.65	-0.0	-0.2	+10.3
유틸리티	320.37	-0.4	+1.2	+4.8
에너지	615.54	-1.4	-2.4	-3.5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61	-3.6	-4.9	Dollar Index	103.789	-0.3	-0.3
브렌트유	73.24	-3.4	-4.9	EUR/USD	1.0798	+0.3	+0.0
천연가스	2.31	-5.8	-15.5	USD/JPY	145.51	-0.4	-1.1
금	1,993.20	+0.1	-2.0	GBP/USD	1.2567	+0.1	-0.2
은	23.02	+0.0	-6.0	USD/CHF	0.8753	-0.4	+0.0
알루미늄	2,121.00	+0.2	-1.8	AUD/USD	0.6560	-0.1	+0.1
전기동	8,355.00	+0.2	+0.2	USD/CAD	1.3592	+0.1	0.0
아연	2,430.50	+1.0	+0.4	USD/RUB	90.2730	-0.8	-2.3
옥수수	485.25	+0.7	-1.2	USD/BRL	4.9663	+0.6	+0.8
밀	625.50	+2.7	-0.8	USD/CNH	7.1911	-0.0	+0.3
대두	1,342.75	-0.8	+1.2	USD/KRW	1,314.00	-0.2	+0.2
커피	185.25	+0.6	+0.8	USD/KRW NDF1M	1,308.85	-0.4	-0.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204	-2.9	+4.0	스페인	3.241	-5.8	-1.3
한국	3.530	-3.0	-4.5	포르투갈	2.892	-5.3	-2.2
일본	0.721	-4.4	+5.1	그리스	3.445	-1.9	+4.0
독일	2.226	-4.4	-2.1	이탈리아	4.004	-6.0	+1.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